

광주시장·전남지사에게 듣는다

박광태 시장

박준영 지사

“일자리 13만4천여개 창출 부자광주 기필코 만들겠다”

“박람회 유치·F1 경주장 착공 지역 균형발전 기틀 다질 터”

“시민 모두가 잘사는 부자광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의 새해 화두는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물론, 생산증가율 면에서 광역시 중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자신감을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13만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총장로 특화거리 조성·금남로 프로젝트에도 나서 문화수도의 기틀도 다지겠다는 다짐이다. 올해를 ‘1등 광주 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다.

-일자리 13만4천여개 창출 방법을 궁극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광주는 다른 도시와 달리 자동차·디지털 가전·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이 모두 성장산업이다. 지난 연말까지 4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한 데 따른 결과다. 3대 주력산업 매출 증대를 통해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부품과 디자인, 신에너지 등 4대 전략산업에서 1만5천개,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으로 2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평가·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

기아차 15만대 신차 라인 유치 노력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기아차 등 기존 기업들의 설비 증대와 신규 대기업 유치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기아차가 2008년 신차 출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15만대의 규모의 신차 라인을 광주공장에 건설하도록 권유하는 등 연산 80만대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수도권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외 기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투자를 유도에 나간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특별법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 문화수도 조성의 핵심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국제적 규모의 건축물로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지원하겠다. 금남로 프로젝트 등 도심 리모델링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반영, 진행하겠다.

-광주시를 영산강을 축으로 한 세계속의 일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는데.
 ▲인구 200만명 이상 규모의 ‘신광주 메트로폴리탄’을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 이를 위해 올해 대선 공약에 영산강 개발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한국전력 등 17개 공공기관이 들어올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제3순환도로·하남산단 외곽도로·북부순환도로·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고속도로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광역 고속도로망 건설도 구체화하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환승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유야 어쨌든 시민들께 격정을 꺼쳐드려 죄송하다.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상호 견제와 감시를 기본으로 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능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서 광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이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부자광주를 만들기 위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수도 계획에 금남로 프로젝트 반영

▲준공영제는 노선개편과 버스-지하철 환승 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시행 초기 한 달 정도 변화에 따른 고통이 있었지만, 한정된 시내버스 자원을 고루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시민들 스스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유급연보좌관제 도입 논란,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 등 시의 회와 관계가 불편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시민들께 격정을 꺼쳐드려 죄송하다.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상호 견제와 감시를 기본으로 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능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서 광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고루 잘 사는 전남을 위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간척지 문제 지원 약속 J프로젝트 ‘탄력’

“큰 것에 놀라지 말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007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보낸 첫 메시지다. 올해 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고 7월에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이 착공되는 등 전남의 ‘운명’을 바꿀 대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박 지사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시화되는 터에 지역주민과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당부로 들린다.

-2007년은 전남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다.
 ▲올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여부가 결정되고 F1대회 경주장을 착공해야 한다. 지역의 ‘운명’을 바꿀 대역사의 첫 삽을 뜨는 해로 그 어느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다.

-올해 도정 역점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7대 성장거점’을 본격 개발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 7대 성장거점(2+5체제)은 2대 국제행사(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실현·2010 F1대회 가시화)와 5대 신도시(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무안기업도시·나주공동혁신도시·남악 신도시·신대 국제학교교육도시)건설의 성공적 추진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겠다.

-도정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힌다면.
 ▲고루 잘 사는 전남을 위해 권역별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을 마련하고 바이오·신소재·우주항공분야 등 기술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친환경 생명산업 정착과 살기 좋은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을 본격화하고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과 창의적 요소를 살린 관광문화산업 진흥에도 힘써 ‘신해양시대’를 열어 가겠다.

노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과 도민 제일주의 행정 실천하겠다.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환경을 중시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

-서남권종합개발,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주요현안이 본격화되

신해양 시대 열어 ‘잘사는 남도 건설’

는 2007년 공모를 통해 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정권의 향방에 따라 지역 역점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올해 본격화되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조성(J프로젝트), 공동혁신도시,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은 누가 정권을 맡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도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만큼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다.

J프로젝트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간척지 확보 문제는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단계별 해결 방안도 나와 있으므로 서두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대선 후보들에게 관광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해왔고 각 정당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한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

서남권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과 지원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관광투자를 적극 활성화해야한다는 점을 누차 역설한 바 있어 연초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부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지사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도민 성원에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남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사의 소명을 다하겠다. 다른 것은 생각해보진 않겠다.

-박지키기자 unipark@kwangju.co.kr

길을 열어라! 멘토르

“Wee parent Mentor Community”
 길을 여는 행복한 최고대행사 - 멘토르가합니다어선